

청자상감당초문대접

대구소 향리와 행수도공 최씨는 운이 좋았다. 마침 조운선이 뗏으며 여름인데도 마파람이 불지 않았으므로 미산포까지 내려오는데 예정한 날보다 하루밖에 더 걸리지 않았다. 조운선에서 내린 대구소 향리와 행수도공 최씨는 미산포 별장이 내준 말을 타고 금의환향했다.

왕이 백금 20냥을, 공예태후가 개경 숙삼 두 꾸러미씩을 하사한 것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었다. 대구소 향리는 하늬바람에 날리는 턱수염을 쓸면서 공연히 헛기침을 했다. 대구소 군사들 모두가 대구소 향리가 큰 벼슬을 하고 돌아온 것처럼 부러워했다. 미산포 별장이 말했다.



“나리, 폐하께서 큰 상을 내리셨다는 소문이 자자해봉마요.”

“그동안 상 받은 사람이 나만 있었겠는가.”

“탐진에도 도감이란 벼슬아치를 내려보낸다는디 첫 도감은 나리가

아닌게라우?”

“허허허. 쓰잘때기웁는 소리 마소.”

사당마을 행수도공 최씨도 마찬가지로였다. 도공들이 미산포 포구 안길까지 몰려나와 축하했다.

“최 도공님, 서울 물이 좋은지 신수가 흰허요.”

“한 달간 흙을 맨지지 않았더니 손이 처녀 손맹키로 부드러와져부렀네야.”

대구소 향리는 당장 할 일이 떠올라 달려온 도공들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내 한 톱 널 텐게 쪼간 심을 보태야 헐 일이 있네.”

“무신 일인디요?”

“형부상서 나리께 약조를 해부렀네. 상감헌 청자삿발을 보내주기로 말이여.”

“또 서울로 가시는게라우?”

“한 번이든 됐지 어처케 또 올라간당가. 월등사로 보내든 알아서 가지고 간다고 허네. 궁께 자네덜이 맨든 청자삿발을 모레까지 한 번 대구소로 가져와 보소. 칠량 도공덜에게 내 말도 전해 주고.”

“나리께서 품평하시게라우?”

“지금까지 내가 헐 일이 그것밖에 더 있는가. 품평해서 젤로 좋은 청자삿발을 보낼라고 허네. 물짠 것을 보내든 우리 탐진 도공덜을 우습게 볼 것인께 말이여.”

“서울로 가는 것인디 물짠 것을 보낼 수는 읍지라.”

수년 전부터 대구소 향리의 주관 아래 문양을 그리고 상감기법을 익혀 왔던 도공들이었으므로 너도나도 동조했다. 자신의 청자사발이 개경의 힘 있는 대신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명예롭고 그만큼 청자사발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대신들은 최상급 청자사발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힘을 은근히 자랑하는 기회로 삼곤 했던 것이다.

행수도공 최씨는 대구소에서 곧장 자신의 가마가 있는 사당마을로 갔다. 그의 동막에는 개경에 가기 전에 청자기와와 함께 구웠던 청자사발과 청자대접이 여러 묶음 쌓여 있었다. 대구소 향리가 사흘 후에 가져오라는 것도 찻잔 용도의 청자사발이나 다식용 그릇인 청자대접이었다. 그러니까 청자사발은 찻잔 용도로 발효차를 따르기에 알맞았고, 입이 큰 청자대접은 떡 같은 다식을 담기에 좋을 터였다.

사발과 대접의 묶음을 풀어보니 무늬를 음각한 청자와 상감한 청자가 반반이었다. 음각한 청자 중에는 비색이 더러 있지만 상감한 청자들은 하나같이 뇌록색이거나 황갈색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가마 불을 댈 때, 개경으로 올라갈 청자기와를 가장 좋은 자리에, 나머지 청자기물들은 가마 앞쪽이나 맨 뒤쪽에 재임했던 것이다. 다른 도공들도 마찬가지였다. 개경의 태평정이나 양이정의 청자기와를 위해 다른 기물들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다만 청자기와를 굽지 않은 도공들은 달랐다. 문양을 음각하거나 상감한 청자항아리나 청자사발과 청자접시, 청자주병 등을 가마 가득 구워내 동막이나 창고에 채웠다. 행수도공 최씨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행운을 두 번씩 받을라고 허믄 도적놈 심뽀제.’

행수도공 최씨의 혼잣말은 개경에 올라가 포상을 받은 사람이 또

행운을 기대한다면 과욕이라는 뜻이었다. 또한 대구소에 가지고 나가 품평 받을 만한 수준의 청자는 아니라는 자평이기도 했다.



사흘 후.

도공들이 대구소로 모여들었다. 문양을 상감한 발효차 찻잔 용도의 청자사발과 입이 큰 청자대접만 가지고 나와 모이기는 처음이었다. 천개산 골짜기마다 들어선 가마의 도공들이 십여 명 모여들자 대구소 당전 공터는 마치 개시한 장터처럼 북적거렸다. 칠량에서도 도공 두어 명이 천개산 고갯길을 넘어와 주뵈거렸다.

칠량에도 도공들이 들어가 산 것은 수년 전의 일이었다. 대구소 주변의 도공들이 태토를 구하기 쉬운 칠량 골짜기까지 들어가 가마를 지었는데, 이제는 칠량소가 있어야 된다고 토성 족장들이 주장하기도 했다. 토성 족장들이 합의한다면 칠량소를 운영하지 못할 것도 없었다. 개경에서 탐진 청자를 주문하는 수요가 많아진 반면에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대구소 향리가 당전 공터에 진열한 청자들을 보고 놀랐다. 도공들이 각자 자신 있는 청자를 몇 점씩 가지고 나온다면 몇 십 점쯤 되리라고 예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1백여 점의 청자사발과 청자대접이 당전 공터 한쪽에 가득해 난전을 방불케 했다. 사당마을 행수도공 최씨가

대구소 향리에게 다가와 말했다.

“향리 나리, 지는 요번에는 가지고 나올 것이 읍그만이라.”

“그래도 가지고 나와 겨뤄 보제 그랬는가?”

“여그서 봉께 잘했그만요. 상감청자덜이 요로코름 이쁘지 몰랐그만이라.”

“뭇 년 전부터 우리가 노력헌 결과네. 여그다가 모아 놓아 봉께 문양을 음각헌 청자도 이쁘기는 마찬가지로네.”

청자기물의 문양이 음각에서 상감으로 발전했지만 음각한 청자도 아름답기는 여전하다는 말이었다. 대구소 향리의 촌평은 탐진 청자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었다. 문양을 음각한 청자가 은근한 멋이 있다면 상감한 청자는 도도하고 화려했다. 문양을 음각한 청자가 수줍음이 많은 처녀의 맨얼굴이라면 상감한 청자는 다 큰 처녀의 화장한 얼굴 같았다.

“그라믄 자네가 나를 도와주게. 자네가 평헌다고 해도 불평헐 도공은 읍을 것이네. 자네 청자가 읍응께 공평허다고 보지 않겠는가.”

“맨드는 일이 에렵제 평허는 것은 수월헌께라.”

“얼릉 보세. 우리가 서울 가 있는 동안 청자 주문이 많이 왔던 모양이네. 청자기야를 맨든 뒤로는 청자 건축부재 주문도 밀리고 있는 거 같네. 특히 개경 밑에 있는 혜음원이란 곳에서 주문이 겁나게 많이 와부렀다고 허네.”

“서울에 가기 전에 월등사에 보낸 청자자판 같은 거 말썸이지라?”

“그라제. 청자기둥도 있고, 전(塼)도 있어.”

청자자판(靑瓷磁板)이란 건물 벽에 붙이는 직사각형의 널빤지 같은 건축부재였고, 청자전이란 그보다 작은 것이었다. 한강 북쪽에 있는

혜음령 산자락에 들어선 혜음원은 개경에서 왕이 남쪽으로 행차할 때 묵는 행궁이었다. 행궁에는 절도 있었고, 관원과 군사들이 이용하는 숙소도 있었는데, 장사를 하는 일반 백성들은 행궁 밖에 늘어진 초가에서 살았다. 군사들은 험산인 혜음령에 출몰하는 도적떼를 막고자 혜음원에 주둔했다.

이윽고 대구소 향리와 행수도공 최씨는 품평을 시작했다. 맨 먼저 본 청자사발과 청자대접은 비색과 상감한 구름무늬는 좋지만 모양이 사발도 아니고 대접이라고 하기에 애매했다. 굵이 없고 크기가 컸다. 차라리 승려의 밥그릇인 발우라고 해야 옳았다. 그래서 밤골마을에서 온 도공의 청자 완(碗)은 아깝지만 탈락했다. 행수도공 최씨가 말했다.

“향리 나리, 참말로 아깝그만요. 흐건 구름 상감이 참 멋지그만이라.”

“나도 아쉽네. 허지만 상서 나리와 약속헌 기물은 아니잖은가.”

구름무늬들이 완 내부 밑에 백토로 상감돼 있고, 내부와 외부 위쪽에는 흰 줄 세 가닥이 선명하게 그어져 안정감을 주었다. 마치 흰 구름이 허공에 떠 있는 듯한 문양의 청자상감완이었다. 대구소 향리가 도공을 위로했다.

“가지고 있으믄 값이 올라가는 좋은 것인께 주인을 지달려 보시게.”

“향리 나리, 그라졌습시다요.”

행수도공도 한 마디 했다.

“아따, 자네 청자가 겁나게 좋아져부렀네. 공께 좋은 일이 있을 것이네.”

“아이고메, 성님. 심이 나부요.”

밤골마을에서 온 도공은 낙심하기는커녕 어깨를 으쓱하며 가지고 온 청자를 보자기에 쫘다. 두 번째로 본 청자들은 눈으로만 보고 지나쳤다. 연꽃무늬를 음각한 청자사발과 청자대접들이었으므로 품평의 대상이 아니었다.

“요것덜도 아깝네야.”

“연꽃 이파리를 참말로 정교하게 음각했그만요.”

“도공덜헌테 전달이 잘 안된 거 같으네. 상감헌 것만 가지고 나오라고 했는디 말이여.”

세 번째로 본 칠량에서 온 도공의 작품은 구름과 학, 인동초 덩굴이 백색과 검정색으로 잘 상감돼 있기는 하지만 비색이 아니었다. 잿빛이 섞인 뇌록색으로 칙칙했다. 칠량 도공은 대구소 향리에게 읍소했다.

“향리 나리, 고색이긴 헌디 바깥은 청록색인께 받아주시씨요. 요거 나 올라믄 한 가마에서 한두 개뿐이어라우.”

“나도 안타깝네만 여그 도공덜이 다 보고 있네. 공평허지 았으믄 두고두고 나를 원망힐 것이네.”

“향리 나리, 요것만은 구제혈 방법이 읍을께라우?”

행수도공 최씨도 칠량 도공의 편에서 말했다. 그러자 대구소 향리가 마지못해 말했다.

“오늘 품평이 끝나고 다시 가져와 보게. 내가 기회를 봐서 주선해 보겠네.”

“아이고메, 고맙그만요.”

그제야 칠량 도공이 붙잡았던 대구소 향리의 소맷자락을 놓았다. 대구소 향리는 칠량 도공의 통사정을 그런 식으로 들어주었다. 비색이 나오지 않고 뇌록색으로 탁한 것은 가마 속에 불을 오래 가두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불이 불을 태워야만 비색이 나타났다. 그렇지 않으면 청자 기물이 뇌록색이나 황갈색으로 나오기 일쑤였다.

다섯 번째 품평 대상은 쌍계사 아랫마을 도공의 작품이었다. 청자 사발과 청자 대접은 일단 합격선이었다. 그러나 흠이라면 유약이 고르게 녹지 않아서 광택이 안 좋았다. 대구소 향리는 한참 동안 망설였다. 이런 경우는 장점에 점수를 주면 장점이 크게 보이고, 단점만을 보면 단점이 더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쉽게 상품(上品)이라고 품평하지 못하고 결심을 미루었다. 대구소 향리가 말했다.

“자네 청자는 뒤에 있는 것덜을 다 보고 다시 한번 더 보겠네.”

“괴안찮그만요. 답에는 더 잘 맨들어서 가지고 나올게라우.”

“문양도 뛰어나고 모양도 좋아서 그러네.”

“옆에 있는 것을 봉께 지는 아무것도 아니그만요.”

쌍계사 아랫마을의 도공이 순하게 웃었다. 성정이 착한 도공들은 자기 작품을 그악스럽게 자랑하지 못했다.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했다. 대구소 향리는 그런 도공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졌다.

여섯 번째 역시 쌍계사 골짜기 마을에서 온 도공의 작품이었다. 청자 사발과 청자대접이 반반이었다. 대구소 향리는 청자사발을, 행수도공 최씨는 청자대접을 살폈다. 대구소 향리는 청자사발을 별 감흥 없이 보고 있었는데, 행수도공 최씨는 청자대접 한 점을 골라냈다.

“나리, 요로코름 생긴 대접은 귀물 같은디요.”

“사발은 쪼깐 거시기헌디, 대접은 입이 작은 것이 흠인디 일단 점은 찍어 두게.”

대접이라면 입이 한 뺨이 넘어야 다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입이 반 뺨 남짓 되면 실용성이 떨어질 것이 뻔했다.

일곱 번째는 용운마을에서 왼편으로 올라간 냇가 끝에 사는 도공의 청자사발과 청자대접들이었다. 그것들 중에서 청자대접 하나가 눈에 확 띄었다. 대구소 향리와 행수도공 최씨가 동시에 손으로 가리켰다.

“최 도공, 이짝 대접 쪼깐 보게!”

“지도 그 대접을 보고 있그만요!”

우선 모양이 완벽했다. 굽 부분이 어른의 검지 두 마디 정도로 좁고, 높이는 검지 세 마디쯤 되었으며, 입은 한 뺨 남짓 벌어진 형태인데 굽에서 입에 이르는 선이 급하지 않고 완만했다. 무늬도 대접의 안과 밖이 달라 단조롭지 않았다. 안은 흰 선 위에 인동초 덩굴무늬(唐草文)를 온통 역상감(易象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이했다. 역상감이란 무늬의 배경을 백토로 상감함으로써 무늬가 비색으로 드러나게 하는 기법인데, 상감법의 기교 중에 하나였다. 역상감한 위는 다시 풀잎이 엷힌 띠무늬를 백토로 상감하고 마감했다.

대접 바깥은 원 둘레에 다섯 송이의 국화를 백토로, 줄기와 잎은 흑토로 상감했는데 단조로운 듯하지만 격조가 있었다. 국화 다섯 송이 위는 풀잎이 엷힌 띠무늬를 둘러 허전함을 메운 것 같았고, 그 위에는

구름무늬를 살짝 띄워 시원한 느낌을 주었다. 대구소 향리는 청자상감 대접을 가져온 도공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았다.

“천하의 명품이네. 내 생전에 침 보는 청자대접이그만.”

“아이고메, 과찬이그만요.”

“나는 형부상서 덕에 자네 청자대접을 보낼라네. 값은 후하게 쳐주겠네.”

“값이 중허다요, 재상덕에 지 청자가 가는 것만으로 족합니다요.”

“아닐세. 나에게서는 폐하께서 하사하신 백금 20냥이 있네. 나는 자네에게 백금 10냥을 주겠네.”

행수도공 최씨는 대구소 향리 말에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대구소 향리가 의종이 하사한 백금 10냥을 도공에게 주겠다고 하니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공유 별채 방에서 한 달 동안 신세를 진 것은 자신도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대구소 향리는 다른 도공의 청자사발과 청자대접들은 건성으로 보며 지나쳤다. 방금 보았던 청자대접이 워낙 탁월했기 때문이었다. 행수도공 최씨가 말했다.

“청자사발은 으편 것으로 정혈게라우?”

“아까 참에 본 것이 있잖은가. 쌍계사 아랫마실 도공이 맨든 사발 말이여.”

“지도 그곳이 아깝드랑께요.”

대구소 향리와 행수도공 최씨는 다시 뒤로 갔다. 다음에는 더 잘 만들겠다고 겸손해하던 그 도공은 아직 짐을 싸지 않고 있었다. 행수도공이 잔걸음으로 가서 말했다.

“여그 청자사발을 다섯 개만 사졌소.”

“뫓으로 쓸라고라우?”

“사발은 발효차 찻잔이지라. 반찬그릇으로 쓰기는 아깝제.”

“은제든지 싫증이 나믄 갖고 오쑤잉. 바짜드릴게라우.”

“한 번 사믄 그만이제 뫓을 바꾼다요. 근디 값은 을마요?”

“아따, 쪼깐만 주시씨요.”

“백금 5냥이믄 되졌소? 착헌 마음씨 값까지 친 것이요. 하하하.”

“시방 뫓이라고 했는게라우? 백금이라고라우.”

“그렇소.”

“한 개에 백금 1냥인 셈인디 내 청자사발은 고로코름 값이 나간 적이 없어라우.”

“아따, 유약이 고르게 녹지 않고 흘러내린 것도 일부러 헌 거맹키로 멋있소야.”

“지 허물을 고로코름 덮어준께 가만히 있을 수가 없그만요. 한 개를 더 줄라요.”

행수도공 최씨가 백금 5냥을 끝내 주겠다고 하자 쌍계사 아랫마을 도공은 청자사발 한 점을 더 얹어주었다. 도공 최씨가 방금 산 청자사발 역시 개경에서 신세를 진 문공유 댁에 보낼 것이었다.

청자사발과 청자대접의 품평회는 한 나절 만에 끝났다. 도공들이 짐을 싣 뒤 당전에 들어가 차를 마시거나 잡담을 나누면서 당전 공터는 행하니 비었다. 도공들은 기회는 언제나 있고, 잘 만들기만 하면 그때그때 개경에서 내려온 관원들이 다 가져가므로 미련은 갖지 않았다. 더구나 대구소 향리의 품평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데다 이미 쓴맛 단맛을 경험한 터라 개의치 않고

홀홀 털어버렸다.

다음날.

대구소 향리는 청자대접과 청자사발 네 개를 묶어 포장한 뒤 군사를 시켜 목간에 문공유택상(文公裕宅上)이라고 쓰고 자신과 최 도공의 신분을 밝혔다. 대구소 향리가 우두머리 군사에게 말했다.

“월등사에 가서 주지스님을 뵙고 가관선사께 전해드리라고 하게.”

“알겠그만요. 나리.”

“가관선사께서 조만간에 내려오실 것 같으네.”

“요즘은 월등사에서 우리 청자를 자꼬 가져 갑니다요. 진작에 가져간 청자전은 법당 외벽에 붙였드그만요.”

“앞으로도 청자자판은 물론이고 갈 것이 많네.”

대구소 향리는 군사 세 명을 월등사(月燈寺)로 보낸 뒤 한찬 동안 북녜 하늘을 바라보았다. 군사를 세 명이나 붙인 이유는 보물 같은 청자사발과 청자대접을 들고 가기 때문이었다. 한때는 무위사 스님들이 대구소를 자주 왔으나 지금은 월등사 스님들이 더 많이 찾았다. 인종10년 월등사에 묘오스님이 주지로 부임해 와서 도량 정비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동안 바뀐 현상이었다. 묘오선사는 가관선사와 문중은 다르나 도반처럼 지내는 사이로 알려졌다. 가관선사는 가지산문 원응국사 학일대선사의 제자였던 것이다. 무위사가 광종 때까지 개경의 고위 관원과 전국 선찰의 선승들이 모여들었다면 지금은 시절인연을 만난 월등사의 사세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었다.

두 달 보름 후.

개경 문공유가 대구소 향리에게 탐진으로 오는 청자운반선 편에 서찰을 보내왔다. 보내준 청자사발 네 점을 발효차 찻잔으로 잘 사용하고 있으며, 청자대접은 너무나 아름답고 기록해서 자신의 책상 위에 완상용으로 소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였다. 그런데 자신이 노환을 앓고 있어 언제까지 완상할지 미래를 장담할 수 없으므로 자신이 죽으면 무덤에 함께 묻어달라고 이미 유언을 남겼다는 사연도 덧붙였다. 대구소 향리는 탐진 청자상감당초문대접의 가치를 진심으로 알아주는 문공유 재상의 쾌유를 빌었다. 무덤까지 가지고 가서 완상하겠다는 병든 재상이 한없이 고맙기만 했다. 탐진 청자를 무덤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재상은 그가 처음이었던 것이다.<계속>